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2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8일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국비 사업 취소·재검토 … '실적 쌓기' 부작용

민선 시대 지자체 신규 사업 적합성 보다 국비부터 확보
광주 노인복합시설 수영장 등 지역 숙원사업 대부분 변경
5·18기록물 시설 등 지지부진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막대한 지자체 대응 예산과 사업 이후 운영·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취소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 국비 150억원이 확보된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사업도 조성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확보한 대형 국비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면서, 지방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취소할 경우, 향후 타 시·도와의 신규 사업 유치 경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 시 '일단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 중심 행정 관행을 버리고, 필요성·적합성·시급성 등을 따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계획했던 300억원(국비 150억) 규모의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전문 예술인 창작·교류 전용 공간, 레지던시 등을 갖추게 될 아트플라자 구축을 위해 이미 국비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민선 8기 들어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이 수정됨에 따라 조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결국 지난 4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향후 사례 조사와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5·18기록물 보관시설 확충 사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60억원·시비 160억원 등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서구 화정동 소재 국군광주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 공간을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5·18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을 우려해 전면 중단했다. 이미 국비 160억원까지 확보한 상태지만, 계획을 대폭 수정해 5·18 교육관 인근 공터에 수장고를 신축하는 방안과 함께 통합수장고 건립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5·18기록물은 물론 지역 내 다른 중요 자료도 함께 보관할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지이전 등 핵심 사업 내용 변경시엔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신규 건립 부지도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일부에선 차라리 가칭 국가기록원 호남분원을 유치하고. 5·18기록물과 함께 일제강제동원·호남의병 관련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인복합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물, 수영진흥센터, 국민진흥센터 등 각종 복지·편의 시설 확충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인 효령국민체육진흥센터는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들여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내에 건립하려했으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이유로 올스톱 됐다. 특히 매년 30억원 안팎의 수영장 운영비도 부담이 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단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고, 수영장을 제외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영장을 갖춘 효령국민체육진흥센터는 인근 시민과 특히 노인 세대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영장을 뺀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2억원·시비 370억원을 들여 광산구 비아동에 건립하려던 서부권 노인복지관도 같은 이유로 수영장 없이 짓기로 했다. 효령국민체육진흥센터와 서부권 노인복지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권 SOC 공모 사업으로, 수영장을 짓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수영장 건립을 포기한다면 국비도 모두 반납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문체부도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입장"이라며 "이미 주변에 여러 곳의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진행해온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광산구 신창동에 사업비 296억원(국비 17억원, 시비 279억원)을 들여 사무공간과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갖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국비 17억원을 배정받고도 사업부지 내 사유지 확보 어려움과 좋지 않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 부지와 가까운 곳에 짓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사업(2022~2026년·사업비 299억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국비를 반납하고 시 예산만으로 사무 공간만 갖춘 소규모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다만 다양한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회관 건립 자체가 무산된다는 점에서, 사업 설계 당시 신중하지 못한 위치 선정 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 "대학 벽 허물어야…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 연합뉴스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 임명

금감원 부원장 출신…"개혁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사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 후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며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했다.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지도부는 그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이었다.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면서도 원칙주의자적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며 "특히 어려움에 있는 금융 약자들의 편에 서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정치권에 몸을 오랫동안 담은 분이 아니라 참신성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김 교수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성추행·음주운전 …기강 풀린 광주 경찰 ▶6면
북스 -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14·15면
축구 대표팀 페루와 평가전 손흥민 벤치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